

교육선교로서의 북한선교에 관한 연구*

임창호(고신대학교/교수)

changholim10@gmail.com

한글 초록

본 연구는 러셀의 선교로서의 기독교교육론을 북한선교에 적용시켜, 향후 북한선교의 새로운 방향설정에 이정표 제시를 주목표로 하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러셀은 기독교교육을 선교적 관점에서 새롭게 해석한 최초의 기독교교육학자이다. 그녀에 의하면, 기독교교육은 교회를 유지하고 새신자를 양육하여 성장시키기 위한 단순한 교회의 도구가 아니라, 보다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선교에 속한 영역이다. 즉, 하나님과 이웃과의 화해를 통하여 참된 인간성을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도록,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진 그리스도의 초청에 우리들이 참여하도록 제공된 방법이라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러셀의 기독교교육의 이해를 바탕으로, 서론과 제2장에서 현재까지의 북한선교사역의 상황과 분석, 북한이해를 위한 접근방법들과 기독교교육학 영역에서 선행된 북한선교와 통일관련 선행연구를 수행하였다. 제3장에서 러셀의 인간화선교교육 이론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 보았고, 제4장에서는 러셀이론의 북한선교 영역에의 적용을 시도하였다. 북한선교 영역에서 선교대상인 북한주민(탈북민을 포함하여)의 참된 인간성 회복의 의미와 구체적인 사역은 무엇인지, 현실적으로 지속가능한 인간화사역은 어떠한지, 북한주민에게 하나님과 또한 이웃들과 화해할 수 있도록 하는 현장은 어떠한지, 이러한 사역이 그리스도의 초청이라는 사실을 어떠한 방법으로 전달해야 하는지, 이 사역에 함께 참여하는 자들은 어떠한 준비가 필요로 한지, 나아가, 러셀의 인간화 선

* 본 논문은 2020년도 고신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교육으로서의 북한선교가 이전의 북한선교 방법들과 비교해 볼 때 어떤 면에서 훨씬 효과적일 수 있는지를 살펴본 후, 마지막 제5장에서 전체글을 마무리 하였다.

《 주제어 》

선교교육, 인간화, 하나님의 선교, 북한선교, 공동체, 대화, 자유, 참여

I. 들어가는 말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북한은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나라이다. 독도문제에 대해서는 같은 입장에 서서 일본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이며, 민족공동체를 형성할 동반자로서 통일문제를 운명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유일한 파트너이다. 동시에 북한은, 70년 전 한국을 공산화하기 위하여 구 소련군과 중공군을 앞세워 무자비하게 6·25남침을 감행하여 무고한 137만 명의 인명을 살상한 침략국이며, 정전 이후도 65년간 끊임없이 도발하여, 정전협정 위반만 43만 건을, 간첩 침투 및 한국인 납치, KAL기 폭파,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 총합 3,119번이 넘는 지역적 국지적 도발을 통해 우리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 현재적 적국이기도 하다(국방백서, 2018, 267).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게도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이런 북한 동족들을 위하여, 또한 남북통일을 위하여 70여 년간 끊임없이 기도해 왔다. 머지않아 반드시 남북통일의 날이 찾아올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을 갖고 인내하며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김일성부자 3대 세습 독재국가를 이어온 북한정권은 강력히 타도하면서도, 북한 동족 구원을 위해서는 한없는 애정과 헌신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또한 한국교회의 정서이다. 이렇게 남한과 북한은 어떠한 이론이나 말로도 설명하기 힘든 애증관계로 뒤섞여 있는 나라이다.

북한선교는 북한동쪽을 위해 시작한 기도회에서 처음 사용된 명칭이다(박영환, 2018, 256). 기도회로 시작된 북한선교는 시간이 지나면서 다양한 현장사역도 함께 펼쳐 왔다. 때로는 남북정부간 교류(1972년 7·4 공동성명, 2000년 남북정상회담과 6·15 선언, 2007년 남북정상회담과 10·4선언 등을 전후하여)의 틈새를 활용하여 참여하기도 했으며, 개인, 교회, 교단, 또는 선교단체들이 국내와 북중 접경지역을 오가며 다양한 선교사역을 펼쳐왔다(김병로, 2010). 그러나 기도회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온 것에 비해, 현장사역의 대부분은 남북정부의 상황변수에 따라 중단되기도 하여 단회적, 산발적, 개별적인 것으로 특징지어진다고 볼 수 있겠다. 남한교회와 교계를 하나로 아우를 수 있는 북한선교 콘트롤타워 시스템이 가동되지 못하고 있는 점은 안타까운 과제 중 하나이다(임창호, 2017, 15).

기독교교육학 분야에서도 통일교육 혹은 평화교육 차원에서 접근한 연구가 꾸준히 발표되어 왔다(2장 3항 참조). 하지만, 선행연구 대부분이 통일교육 분야에 집중되어 있으며, 북한선교 사역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기독교교육학의 학제적 혹은 융복합적 관점에서의 연구는 의외로 적극적이지 않았다(오인탁, 2008; 임창호, 2020).

본 연구는 북한선교를 기독교교육학적 관점에서 적용해 본, 일종의 학제간 연구의 성격을 지닌 시론(試論)이다. 주지하는 바대로, 북한선교는 기본적으로 선교학의 영역이다. 기독교교육학은 기본적으로 교육학의 영역이다. 이 두 영역을 융복합적 관점에서 접근한 기독교교육학자가 레티 러셀(Letty M. Russell, 1929-2007)이다. 그녀는 선교적 관점에서 기독교교육을 해석하여 새롭게 정의하면서, 기독교교육은 선교라고 명명하였다(Russell, 1967, 28). 러셀이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된 것은, 그녀 자신이 14년간 뉴욕의 이스트할렘 개신교교구에서 교사와 목사로서 불우한 흑인청소년들을 돌보며 섬긴 사역의 경험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다(Russell, 1967, 10). 기독교교육자로서, 선교 현장에서의 경험을 통해 신학적, 기독교교육학적 반성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물이 선교교육론으로 재구성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러셀의 선교교육론 원리를 북한선교에 적용하여, 그 실현 가능성을 기대해 보면서, 향후 북한선교가 교육선교적 관점에서 새로운 지평을 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본고는 교육을 선교 도구와 방법의 하나(Russell, 1967, 11)로 보는 러셀의 “선교 안에서의 기독교교육(Christian education in mission)”이론을 중심으로 북한선교에의 적용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연구의 구성은, 이하 북한과 북한선교를 개요한 뒤, 러셀의 선교교육론 이론의 원리를 개략적으로 소개한 후, 이 원리들을 북한선교에 적용해 봄으로써 향후 북한선교로서의 교육선교의 실현 가능성을 개진하면서 마무리 글에 이를 것이다.

II. 북한과 북한선교

북한을 알려면 우선 북한의 독특한 사상인 주체사상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주체사상은, 북한 유일한 지도이념이며 최고 통치이념이다. 주체사상은 김일성주의라고도 부르며(리동수, 2004, 14) 다른 어떤 이념이나 사상보다 앞서며, 사회의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완성된 이론으로 여겨진다(리동수, 2004, 4). 1955년 12월, 노동당 선전선동원 대회에서 김일성이 ‘주체’를 언급하였으나(조인형, 2014, 223), 이후 주체사상은 아들 김정일에 의해 더욱 발전되었다(김병로, 2000, 24). 김정일은 1974년 4월 14일, ‘전당과 온 사회에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튼튼히 세우자’라는 문헌을 발표하면서, 서문 10개 조항 62항목 후문으로 구성된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이하 10대 원칙)을 소개하였는데, 이 원칙은 김일성을 신격화하는 공식적인 문서로써, 이후, 북한의 헌법이나 노동당 규약보다도 상위에 있는 북한 최고법의 위상을 가질 뿐 아니라(송인호, 2019, 147-150), 북한사회에서 기독교인들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 절대기준인 10계명과도 같은 역할을

한다(김병로, 2000, 47). 실제로 10대 원칙 제3조에는 십계명 제1조(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와 유사한 내용이 다음과 같이 등장한다.

3.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권위를 절대화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권위를 절대화하는 것은 우리 혁명의 지상의 요구이며 우리당과 인민의 혁명적의지이다.

- 1)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밖에는 그 누구도 모른다는 확고한 립장과 관점을 가져야 한다.
- 2)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정치사상적으로 옹호하며 목숨으로 사수하여야 한다.
- 3)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성을 내외에 널리 선전하여야 한다.
- 4)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절대적인 권위와 위신을 백방으로 옹호하며 현대수정주의와 온갖 원수들의 공격과 비난으로부터 수령님을 견결히 보위하여야 한다.
- 5)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권위와 위신을 훼손시키려는 자그마한 요소도 비상사건화하여 그와 비타협적인 투쟁을 벌려야 한다.
- 6)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상화, 석고상, 동상, 초상휘장, 수령님의 초상화를 모신 출판 물, 수령님을 형상한 미술작품, 수령님의 현지 교시판, 당의 기본구호들을 정중히 모시고 다루며 철저히 보위하여야 한다.
- 7)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력사와 투쟁업적이 깃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뜻있는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 당의 유일사상교양의 거점인 《김일성동지혁명사적관》과 《김일성동지혁명사상연구실》을 정중히 잘 꾸리고 잘 관리하며 철저히 보위하여야 한다(김병로, 2000, 218-219에서 재인용).

이상에서 본대로 김일성동지 이외에 그 누구도 모른다는 확고한 입장과

신념을 강요함으로써, 실제로 다른 신을 섬기면 안된다는 기독교 십계명의 1계명을 연상케 한다. 10대 원칙은 또한 생활 속에서 북한주민들이 신격화된 김일성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다(김병욱·이영희, 2010, 101). 주체사상은 김일성주의로, 김일성주의는 종교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은 종교적으로 신정체제이며, 국가가 다른 모든 종교를 통제하고 공인하는 공인종교형 체제를 지닌 국가(김진웅, 2003, 331-334)라고 볼 수가 있겠다.

1. 종교적 관점에서 보는 북한

1) 김일성 종교국가

미국의 종교전문 사이트인 에드히런츠닷컴(adherents.com)은 '신도 수로 본 세계 주요종교'에서 2007년에 처음 북한의 김일성주의 주체사상을 종교로 분류하여 10위로 발표한 이래, 2016년도에는 8위까지 서열을 올렸다. '주체(Juche)'라는 이름하에 1,900만의 신도를 거느린 거대한 세계종교로 소개한 것이다.

종교로 구분되기 위해서는 교주, 교리, 교인의 3대 요소가 갖추어져야 하는데, 에드히런츠닷컴은 북한의 주체사상교는 교주-김일성, 김정일, 교리-김일성 주체사상, 교인-1,900만 명 북한 전 주민으로 발표하였고, 종교로서의 모든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도하였다. 주체사상은 세계 모든 타종교를 배척하고, 북한정부가 인정하는 유일한 종교화된 사상이며, 사회학적인 측면에서는, 구소련의 스탈린 또는 중국의 모택동 사상보다 훨씬 더 극명하게 종교적인 색채를 나타내며, 그 추종자들의 인생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 단체가 주체사상을 종교로 분류한 이유로서, 주체사상은 김일성을 우상화하여 신으로 섬기는 심령파(Spiritism)의 종교형태를 지니고 있으며, 유대교(1천400만명), 바하이교(700만명), 자이나교(420만명), 일본의 신토(400만명)보다 더 많은 추종신자를 지닌 새로운 세계종교라고

정의하고 있다(정대일, 2012, 15).

두 개의 개신교회(봉수교회, 칠골교회)와 1개의 평양교구 천주교회(장충성당), 64개의 불교사찰 등을 만들어 놓고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것처럼 선전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김일성 우상화 행위가 국민들의 일상생활의 하나인, 생활총화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전 국민에게 강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1967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생활총화는 정치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매주 토요일마다 전국에 산재한 김일성동지혁명역사연구실(이하 사상연구실)에서 이루어진다. 사상연구실은 당위원회 선전선동부에 의해서 운영되어 지는데(김병로, 2000, 102). 이곳에서 기독교의 예배당과 같은 모임과 학습 등 예배의식을 행한다. 사상연구실은 김일성의 혁명사상과 주체사상, 그리고 김일성의 높은 덕성을 배우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북한 전 지역의 당 및 국가기관,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과 교육문화, 과학기관, 인민군부대 및 경비대 등 인민생활의 모든 부문에 갖추어져 있는 사상연구실은 행정기관, 산업기관, 군대를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약 45만여 곳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김병로, 2000, 6). 김신조씨는 북한의 구역예배는 ‘당 세포회’와 같고 구역장은 세포위원장(책임비서)과 같으며 ‘회개’는 자아비판과 같다고 하면서 학습과 생활총화로 잘 짜여진 북한사회의 체제가 기독교와 비슷한 점이 많다고 말했다(김병로, 2000, 107).

사상연구실에서는 학습활동 이외에 각종 선서모임과 충성의 편지 전달모임, 축전전달모임 등의 여러 행사를 진행한다. 사상연구실은 일상적이고 세속적인 장소와는 구별되는 엄숙하고 성스러운 장소로 김일성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주체사상의 성소로 간주된다. 북한에서는 어려서부터 학생들에게 정치교육을(리영복, 1985, 184) 시켜 사회정치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데, 소학교 2학년부터 시작하여 평생 동안 남녀를 불문하고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되어 있다. 모임 때마다 약 40~50분간 김일성의 교시나 말씀을 중심으로 자아비판과 상호비판을 통해 철저하게 서로를 감

시하게 하며, 무의식중에 김일성우상화를 철저히 세뇌하는 일종의 김일성을 예배하는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다. 생활총화는 누구도 빠지면 안되며 국민적으로 강요되는 의무사항이다. 생활총화를 거부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며, 만일 거부하거나 무시할 경우 북한에서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철저히 통제되고 있다(임창호, 2012, 287-290).

북한은 어느 나라보다도 폐쇄적인 신정국가이며 김일성이 절대적 신으로 우상화되어 어느 종교도 허용하지 않는 배타적 종교국가라고 말할 수 있겠다. 이러한 북한의 종교화 현상에 대하여 주체교나 김일성주의로 부르기도 하는 수령교로 부르는 것이 더 옳다고 김병로는 지적하였다(김병로, 2000, 202)

2) 기독교 박해국가

북한 헌법 제68조에 “공민은 종교의 자유를 갖는다”고 명시해 두었으나, 종교를 통해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질서를 해치는 데 리용할 수는 없다”고 사족을 달아, 외부로부터의 선교를 금지하고 있으며, 특히 기독교신앙을 김일성우상화에 장애요인으로 규정하여 기독교를 철저히 탄압하고 있다(김병로, 2000, 185-190). 실제적으로 기독교신앙을 갖는 것이 북한사회 안에서 불가능하도록 장치해 둔 것이다. 북한에서 살다 내려온 탈북민들 99.6%가 북한에는 종교의 자유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북한에서 기독교신앙 활동을 하다가 적발되어 끌려나간 후 생사를 알 수 없는 사람이 60%이며, 박해를 당한 사람 가운데 사망된 자가 17%이며, 기독교신앙을 가진 자가 박해를 받은 후 생존률은 22% 밖에 되지 않는다고 대답하였다. 또한 기독교신앙을 갖고 있던 자들이 적발될 경우 50%가 정치수용소에, 11.3%는 교회소에, 2.8%는 노동단련대에 수감되는 등, 가혹한 처벌을 받는다고 탈북민들은 응답하였다. 또한 기독교성경책을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될 경우는 간첩죄가 적용되어 국가전복죄로 재판을 받게 된다(북한종교자유백서, 2019, 5).

오픈도어선교회가 발표한 2020년 기독교박해보고서(World Watch List)에 의하면 북한은 19년째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박해가 심한 나라 1위(박해 점수 94)를 차지했으며, 아직도 기독교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로 수용소에 갇혀 있는 기독교인은 5만~8만 명에 이르며, 비밀리에 기독교신앙을 지키고 있는 지하성도들은 30여만 명에 이른다고 보고하고 있다(오픈도어선교회, 2020).

기독교 박해국 TOP 10 순위를 보면 북한에 뒤이어 아프가니스탄(2위, 이슬람), 소말리아(3위, 이슬람), 리비아(4위, 이슬람), 파키스탄(5위, 이슬람), 에리트레아(6위, 독재), 수단(7위, 이슬람), 예멘(8위, 이슬람), 이란(9위, 이슬람), 인도(10위, 종교 민족주의) 순으로 되어 있다. 혹독한 기독교 박해국들인 7개 이슬람국가(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리비아, 파키스탄, 수단, 예멘, 이란)들이 북한의 뒤를 잇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만 한다. 환언하면, 북한은 지구상의 어떤 이슬람국가보다도 기독교신앙에 대하여 잔인한 박해를 가하고 있는 최악의 국가이며, 그런 점에서 북한선교는 이슬람권 선교보다도 더욱 철저한 선교전략과 준비, 그리고 기도가 필요한 국가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2. 한국교회 북한선교의 시작과 유형

1) 북한선교의 시작

기록에 의하면 한국교회가 북한선교의 첫발을 댄 것은 1974년 총현교회의 씨앗선교회이다(박영환, 2018, 256). 북한선교를 위해 태동한 이 작은 기도모임은, 1977년에 김창인목사가 초대이사장으로 선임되면서 기독교북한선교회단체로 독립되었고, 북한선교를 위한 학술연구와 소식지를 펴내는 북한선교단체로서 면모를 갖추기 시작하였다. 그 이전에는 1950년 이후 북한교회 재건이라는 관점에서 한경직목사와 월남성도들이 중심이 되어 영락교회가 개척되고 북한을 위한 기도회와 기금모금도 이루어졌지만 북한선교운동

까지 가지는 않았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한국교회가 북한선교 사역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한 것은 1988년 올림픽 이후 1989년 '남북교류협력법'이 제정되면서 부터이다. 그전까지 한국교회의 북한선교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한교협)의 대북활동과 보수교회의 대북방송과 문서를 통한 선교가 고작이었다. 남북교류협력법 발효라는 환경변화로 인해, 북한 창구가 합법적으로 개설되면서, 그 동안 진보진영 교회를 중심으로 진행되던 남북교회 교류에 보수진영의 교회들이 대거 참여하기 시작하였다(박영환, 2018, 257). 이러한 와중에 1991년 구소련의 붕괴, 1991년 9월 남북 동시유엔 가입, 그리고 1992년 중국과의 수교 등의 외부조건 완화를 통해, 한국 기독교인들이 중국에 거주하고 있던 조선족들과의 접촉이 잦아지면서, 조선족들을 찾아오는 북한주민들이 전하는 북한소식과 북한 지하교회에 대한 정보가 증가하게 되었다. 한국교회들이 북한선교에 대한 적극적 관심을 갖게 된 것이 이즈음부터였다.

2) 북한선교의 유형

1974년부터 작은 기도회로 시작된 북한선교사역은, 한국교회에 북한을 위한 기도운동으로 확장되어왔다. 그러나 한국의 북한선교 운동은 기도회 이외에도 다양한 사역을 동시에 펼쳐온 것도 사실이다. 김병로에 의하면, 90년대 이후 2010년까지의 북한선교 양상과 유형은 다음 세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는 한국교회협의회(한교협)와 북한의 조선그리스도연맹(조그련)을 중심으로 한 통일선교 방향으로, 둘째는 보수성향의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을 중심으로 한 탈북자선교, 북한교회재건 운동, 북한지하교회 지원의 방향으로, 셋째로는 NGO단체들을 중심으로 하는 사역 등의 방향이다(김병로, 2010). 이와 더불어, 허성업은 한국교회가 일관성 있게 북한선교의 방향성을 잡기 위해서는 향후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첫째, 한국교회협의회를 중심으로 조선그리스도교연맹과 함께 동역하는 구조이다. 둘째, 한국기독교총연맹을 중심으로 북한 지하교회를 동역의 파트너로 보면서, 북한 직접선교의 길을 탈북자나, 중국조선족으로 직접 선교사역에 힘을 쏟으며, 북한교회 재건과 선교정책을 시도하는 구조이다. 셋째, 한교협과 한기총을 연계하여 정책을 풀어가되, 한교협에 가까운 형태를 만들어내는 구조이다. 넷째, 북한선교단체나 개 교회를 중심으로 초교파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독자적인 활동으로 NGO를 통한 선교구조이다(허성업, 2015, 407).

허성업의 이와 같은 조언은 임희모(2005), 김병로(2010), 박영환(2018)의 연구에서도 유사한 견해를 발견할 수 있다. 진보성향의 한교협은 북한의 기독교 조직인 조그련과 적당한 선에서 함께 동역하고, 보수성향의 한기총은 탈북자나 조선족, 나아가 북한 내 지하교회를 지원하면서 북한교회 재건에도 관심을 갖는 가운데 각자가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노력하되 동시에 협력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북한선교 단체나 개교회의 사역들은 NGO를 통하여 초교파적인 마인드로 연합전선을 형성해 가자는 것이다.

3) 북한선교 연합체와 콘트롤타워

허성업이 조언하고 있는 대로, 진보든 보수든 각자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사역을 펼쳐나가되, 또한 동시에 진보와 보수가 함께 초교파적인 연합전선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다만, 그럴 경우, 이 모든 상황을 조정하는 콘트롤타워가 필요하게 될 것이다.

독일의 경우 1945년 동서독으로 분단된 이후, 3년 뒤인 1948년 루터파, 칼빈파, 개혁파, 통합파 등의 교회들이 동독교회를 돕기 위해 독일개신교연합회(EKD: Evangelische Kirche in Deutschland)를 조직하였다. 독일개신교연합회는 독일교회는 하나라는 정신으로 교단의 벽을 넘어서 교회들이 힘을 모았다. 이들은 독일개신교연합회를 단일창구로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

며 49년간 동독교회를 도왔다. 그들이 동독을 도울 때 두 가지 원칙을 만들었다. 첫째는 명목 있는 도움으로 동독교회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것. 둘째는 지원한 돈은 사용처를 확인하지 않는 것, 등이었다. 이 두 가지 원칙에 따라 통일되는 날까지 지원한 돈을 동독교회가 어떻게 어디에다 사용했는지에 대하여 단 한번도 확인하지 않았으며, 돈을 지원할 때는 늘 명목을 만들어 주었다고 한다. 단, 동독내 기독교인들에게 인권유린이 발생할 경우에는 강력하게 동독정부를 향해 시정을 요구하였고, 동독정부는 이들 독일개신교연합회의 요구를 받아들여 주었다. 독일개신교연합회에 속한 모든 교회는 1년 예산의 40%를 동독교회를 돕는데 사용했다. 결국 이러한 서독교회의 하나된 섬김이 베를린장벽을 무너지게 한 원동력이 된 것이다. 통일이후 지금까지도 독일개신교연합회는 존속하고 있으며 3만 명의 교회지도자들의 회원들을 보유하고 있다(아이굿뉴스, 2015. 4. 7).

동서독 분단시절, 서독교회가 교파를 초월하여 한 팀으로 연합하여, 동독 동족과 교회를 위하여 49년간 강력한 지킴이가 되어준 사실은, 통일을 대망하고 있는 한국교회를 향하여 강력한 도전적 메시지가 되고 있다.

3. 북한이해를 위한 접근방법들

1) 북한학적 접근

미국 조지타운대학 국제정치학교수인 빅터 차(Victor Cha)는 북한을 ‘불가사이한 국가(The Impossible State, 2012)’라고 명명한 적이 있다. ‘불가사이한 국가’라는 별명에 걸맞게 북한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시각도 다양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접근방법을 갖고 있다.

첫째는 내재적 접근법(Internal or Emic Approach)이다. 이 연구법은 북한을 연구할 때, 북한체제가 설정해 놓은 이념과 논리를 기준으로 삼아, 북한의 특수한 현실을 고려하여 그들 사회현상을 분석하자는 접근방법이다. 즉, 북한 사람의 입장에서 북한을 이해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접근방법

은 북한체제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면서, 북한사회의 비민주적이고 부정적인 면에는 줄곧 침묵해 왔다는 점에서, 오류를 범해왔다는 지적과 함께 비판을 받아왔다(김응수, 2014, 11).

둘째는 외재적 접근법(External or Etic Approach)이다. 내재적 접근법의 제한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개발된 연구법이다. 내재적 접근법에 객관성 결여를 보충하기 위하여, 북한연구에 서구 사회주의의 연구 개념과 분석의 틀을 도입한 접근방법으로서 환언하면,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에 기초한 인류 보편적 시각에서 북한사회 전반을 이해하는 연구이다. 이 접근법으로 수행된 연구들에서는 북한사회가 폐쇄적이고 위험한 국가의 모습으로 보고되어 왔다.

셋째는 내관적 접근법(Emic and Etic Approach)이다. 북한을 내재적 접근법으로 연구하면서 동시에 외재적 접근법적 비판을 함께 가하는 연구방법이다. 즉, 북한사람의 입장에서 북한의 자료 등을 수집하고 분석하여 서술한 뒤, 다시 인류 보편적 가치로 북한사회를 분석 평가하여 이해하는 접근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일반적으로 진보성향의 학자들은 내재적 접근의 연구를, 보수적 성향의 학자들은 외재적 접근의 연구를, 중도적 입장의 학자들은 내관적 접근방법의 연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다(고유환, 2009, 56; 박영환, 2018, 22; 김영육, 2012, 263, 267).

그러나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북한선교는, 북한학적 연구의 접근방법이 아닌, 교육선교적 접근방법으로 고찰하려고 한다. 교육선교는 레티 러셀이 말하는 선교 안에서의 기독교교육의 역할을, 북한선교는 레티 러셀이 말하는 교육선교 원리들의 북한선교에의 적용과 재구성 의미하는 것이다.

2) 기독교교육학적 접근

다음은 해방이후 2005년도까지 오인택이 편집한 기독교교육학 문헌목록집에 소개된 기독교교육학 연구 성과와, 본 연구자가 2006년부터 2020년

10월까지 15년간을 조사한 79편의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1) 1945-2005(오인탁 조사)

1945년 이후 2005년까지 발표된 통일과 북한선교 관련 연구는 다음과 같다. 노정선(1988), 오현석(1988), 예장교(1989), 오인탁(1989, 1993, 1995, 1997, 2000), 한승홍(1989), 강용원(1992), 김성재(1992), 김형태(1993), 윤응진(1995), 임준식(1995), 김도일(1998), 박찬석(1998), 유미선(1998), 양금희(1998, 2000), 김영대(2000), 정일웅(2000), 조은식(2000), 홍정근(2000), 오지연(2001), 조정기(2003), 김영대(2003), 정국용(2004) 등 26편 정도이다. 흥미로운 것은 서울 올림픽이 열린 1988년을 중심으로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온 것이 눈에 띈다. 단행본과 석사학위 이상 논문까지를 포함하면 약 50 여편에 이른다(오인탁, 2006, 41).

(2) 2006-2020(임창호 조사)

오인탁교수 연구 이래 2006년도부터 2020년도 10월까지 약 15년 동안, 기독교교육학 관련 3개 주요 학술지, 기독교교육논총(이하 논총), 기독교교육정보(이하 정보), 교육교회(이하 교회)에 실린 통일교육 관련 연구물을 연대순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주선애(2008-교회), 허문영(2008-교회), 조명숙(2008-교회), 이금만(2009-정보), 박미라(2011-논총), 권대현(2012-교회), 윤응진(2012-논총), 이은경(2012-논총), 임창복(2012-교회), 임창호(2012, 2013, 2017-논총), 양금희(2013, 2017-교회, 2016-논총), 김기숙(2013, 2014-정보), 유재덕(2014, 2015-논총), 이은주(2015-논총), 주승현(2017-논총), 성백외(2017-정보), 조용준(2017-교회), 최진경(2017-정보), 조혜정(2018-정보), 함승수 외(2019, 2020-정보), 장연미(2019-교회), 김성결외(2020-논총),

이상 29편의 연구물 성향을 분류해 보면, 통일교육(권대현, 김성결, 주선애, 조용준, 양금희, 유재덕, 임창호, 장연미, 조혜정, 최진경, 함승수), 평화

교육(김기숙, 윤응진, 이금만, 이은주), 통일과정과 이후의 남북한 교육(양금희, 임창복), 북한인권(주승현), 북한 교과서(임창호) 등으로 요약할 수 있겠다. 지금까지 2편 이상 통일교육 관련 논문을 발표해온 기독교교육학자로서는 오인탁(5편), 양금희(5편), 임창호(3편), 김기수(2편), 유재덕(2편), 함승수(2편) 등이다. 물론 연구자가 인터넷 검색엔진 RISS를 중심으로 조사한 내용이므로, 행여 인터넷에 누락되어 살펴보지 못한 북한선교 혹은 통일관련 논문도 있을 수 있음을 미리 밝혀둔다.

III. 러셀의 인간화 선교교육론

주지하는 바대로, 러셀은 ‘기독교교육은 선교’라고 정의하였다(Russell, 1986, 22). 기독교교육개념과 선교개념은 각각 의미상으로는 차이가 없으며, 단지 관점과 시각의 차이만 있을 뿐이라고 하였다(Russell, 1986, 48). 러셀이 말하는 선교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며, 또한 사람과 사람들 간에 서로 화해를 이루어 참된 인간성을 회복하게 하는 것으로써,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사역을 이루게 하셨고, 그리스도는 모든 남녀노소 누구나 할 것 없이 이러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도록 초청하고 계신다고 하였다. 하나님의 선교는 교회만의 소유물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의 선교활동을 포함한 모든 인간세계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참여하시는 사역이라고 보았다. 기독교교육도 역시 이러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도록 그리스도가 초청하는 하나님의 선교의 도구이며 하나의 방법인 것이다(Russell, 1986, 32). 하나님의 선교 안에 기독교교육이 존재하는 것이다.

러셀은,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사역에 인간을 파트너로 초청하신다는 바르트의 사상, 선교학적으로는 세계와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의 중요성을 강조한 화란 출신 선교학자 호켄다이크의 사

상, 교육학적으로는 해방교육학자 파울로 프레이리의 사상으로부터 각각 영향을 받았다. 바르트로부터는 하나님의 파트너로서의 참여 개념을, 호켄다이크로부터는 자유, 해방, 화해의 개념을, 프레이리로부터는 실천으로서의 프락시스, 연대, 의식화 등의 개념을 수용하고 있는 것이다(이규민, 2010, 129-130).

러셀의 기독교교육사상이, 목적론적으로는 참인간성 회복이라는 점에서 ‘인간화’를, 인간화 과정을 도구화한 실천적 방법면에서는 ‘선교교육’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념을 통합하여 ‘인간화 선교교육론’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다(이규민, 2010, 124). 러셀의 ‘인간화 선교교육론’을 구성하고 있는 핵심 개념으로서,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교가 중심에 있으며, 그리스도를 통한 참인간성 회복이 가져다 주는 인간화와 축하를 교육목적으로, 선교교육론의 장으로써의 증인공동체, 선교교육의 구조로서의 대화, 교육방법으로서의 참여 등을 들 수가 있겠다. 이하 핵심개념들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하나님의 선교

러셀은, 하나님이 세계의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는 일(딤후2:4)”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세계를 향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선교 영역은 당연히 역사적 세계이며, 하나님은 세계 역사 속에서 직접 일하고 있는 것이다(Russell, 1967, 15). 하나님의 선교를, 단지 교회의 선교부 혹은 다양한 사역 가운데 하나로만 제한해서도 안 되며, 동시에 선교를 교회만의 전유물로 여겨져도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또한 교회의 기독교교육을 선교사역과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도 오류이다.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교회사역은 하나님의 선교이며, 하나님의 선교사역은 기독교교육이라는 실천 과정을 통해서 펼쳐지기 때문이다. 기독교교육은 마치 파송

되는 선교사 교육과도 같은 것이다. 어느 부서, 어떤 영역으로 파송되든지 선교사로서 파송되기 위해서는 기독교교육의 과정이 필수적으로 뒤따라야 하는 것이다(Russell, 1967, 15). 그러기에 기독교교육은 선교 안에 속해 있어야 하며, 기독교교육은 곧 선교가 되는 것이다.

2. 교육목적

1) 인간화

선교교육의 목적은 최종적으로 그리스도를 통한 참된 인간성의 회복, 즉 인간화이다. 하나님의 선교는 언제나 ‘인간화(Becoming Human)’와 깊이 관련되어 있으며, 선교의 최종 목적이 된다. 러셀은 인간화가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자기고백을 하고 있다.

나의 선교는 인간이 되기 위한 투쟁과 항상 연루되어 왔다. 이스트할렘에서 우리는 빈곤, 인종 차별, 방치된 도시생활로 야기된 비인간화에 대하여 투쟁해 왔다. 여성으로서 나는 성적 고정관념과 성차별주의로부터 발생하는 비인간화에 대항하여 투쟁해왔다 ……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데서, 보다 더 인간적이 되는 통찰력과 힘을 얻게 되었다(Russell, 1985, 8).

인간화는 그리스도를 통한 화해의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는데, 러셀은 이 과정의 예로서 신약성경 누가복음 24:13-35의 이야기를 들고 있다. 이곳에는 예수님 죽으심 이후, 좌절하여 엠마오로 돌아가는 두 제자가 등장한다. 도상에 주님이 개입하여 그들에게 구약성경을 설명하시지만 처음에는 제자들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러나 주님의 성경이야기를 계속 듣는 가운데 믿음을 회복하게 되고, 주막에서 결국 그들은 주님을 알아보게 된다. 주님을 만난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다른 제자들에게 부활

의 주님을 만난 사실을 알리며 증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한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그들은 주님과 다시 화해할 수가 있었고, 본래 주님 제자의 모습으로 되돌아갔으며, 이렇게 세상으로 들어가 담대한 주님의 증인으로 변화해 가는 모습을, 러셀은 참된 인간성의 회복, 인간화의 과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Russell, 1985, 124-148).

2) 축하

러셀은 교육의 또 하나의 중요한 목적으로 축하(celebration)를 들고 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화해하실 뿐 아니라, 인간은 자기 자신과 타인이 역시 화해를 얻음으로 참 인간다움을 회복하는 일이 선교의 사명인데, 이렇게 인간다움을 회복하는 일을 힘껏 축하해 주는 것은 선교교육의 또 하나의 중요한 목적이라고 하였다. 러셀의 이러한 축하개념은 호켄다이크의 하나님의 선교개념에서 가져온 것으로서, 호켄다이크는 “선교란 영원하면서도 보편적인 주빌리 축제”라고 정의하고 있다(Russell, 1985, 178-179).

기독교교육의 실천은, 이렇게 그리스도를 통한 화해와 인간화를 이루어 가면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의 현실을, 기뻐하고 축하하면서 그들이 새롭게 살아가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예배, 친교, 봉사, 교육의 모든 영역도 그런 의미에서 축하의 잔치 같은 분위기로 만들어져야 한다. 교육현장은 언제나 축하의 현장이 되어야 하며, 그런 의미에서 러셀은 진정한 기독교교육은 ‘축하 잔치의 교육(Celebration Education)’이라고 불렀다(Russell, 1985, 193).

3) 교육의 장으로서의 공동체

러셀은 선교교육의 장(場)을 증인공동체 혹은 선교공동체라고 불렀다. 이 공동체는 반드시 교회를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다.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자들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된 인간성을 회복하고, 화해의 장을 만들기

위하여 요구되는 공동체인 것이다. 마치 엠마오로 향하던 두 명의 제자로 형성된 공동체, 그들이 주님과 함께 주막에서 음식을 나누던 식사공동체,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다른 제자들에게 엠마오 도상에서 만난 주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모여든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이다. 러셀은 이러한 증인 공동체를 필요에 따라 가족형태(family structure)의 공동체, 상설봉사구조 형태(structure of permanent availability)의 공동체, 기동부대형태(taskforce structure)의 공동체 등으로 탄력 있게 운영할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Russell, 1967, 51).

러셀이 말하는 가족형태의 공동체에서 가족이란, 하나님의 가족 개념을 의미한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된, 계급이나 인종적 차별이 없는 가족을 의미한다. 사도바울이 정의해 준 하나님의 가족 개념이다(갈라디아서 3:27-28).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증인공동체는 항상 사랑과 신뢰로 충만해 있다(Russell, 1967, 63). 동시에 증인공동체는 세상을 향한 봉사를 위하여 언제나 준비되어 있고 실천으로 즉시 옮겨야 한다는 점에서 상설봉사구조 형태를 띤 공동체와, 언제 어디서라도 급한 봉사와 도움의 경우를 대비한, 기동부대형태 공동체도 필요한 것이다.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증인공동체는 이렇게 다양하고 탄력적인 형태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Russell, 1967, 63).

4) 교육의 구조로서의 대화

러셀은 교육의 구조를 대화라고 하였다. 이 말은 매우 고전적인 교육용어이기도 하다. 사실 인간교육을 대화의 구조로 설명한 최초의 철학자는 소크라테스였다. 소크라테스는 교육원리로서, 교육방법으로서의 대화를 통한 교육은 인간을 인간 자체로 해방시키도록 한다고 하였다(오인택, 2001, 137). 러셀은 교육의 구조로서의 대화를 설명하면서, 신약성경 누가복음 24:13-35의 이야기를 다시 예로 들고 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대화 중이었다. 그 대화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개입하셨다. 예수님은 그들의 이야

기를 들으시고, 물으시고, 구약의 예언서를 해석해 주시고, 저녁밥상에 둘러앉아 대화를 계속 나눈다. 대화중에 그들은 주님을 발견하게 되고, 자신들의 본래의 모습을 되찾는 인간화에 도달한다(Russell, 1967, 98). 러셀은 대화의 원류와 유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첫째는 하나님의 대화이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대화하시는 것으로 시작하셨다(창 1:26). 하나님은 에덴동산의 인간에게도 대화를 걸어오셨다. 죄를 짓고 숨어있는 아담에게 먼저 찾아와 대화를 요청하신 것이다(창 3:9). 기독교교육은 하나님의 대화로부터 그 원류를 찾을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대화를 통해서 인류를 향한 자신의 계획과 목적을 알려주신다. 두 번째로 기독교교육은 교사와 학생사이에서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일반교육도 다르지 않다. 증인공동체 가운데서도, 구성원들은 대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사역과 세상을 향한 계획과 목적을 나누며 전승하고 교육하는 것이다(Russell, 1967, 99).

러셀은 뉴욕 이스트할렘지역에서의 14년간 사역경험을 근거로, 대화는 믿음의 눈을 뜨게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매일 성경공부를 통해서 성경의 깊이를 이해하게 되고, 마음을 여는 대화를 통해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게 되며, 대화를 통해서 자신들을 둘러싼 지역사회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고 지적하였다(Russell, 1967, 109). 대화를 통해서 성경의 깊이를 알게 되며, 대화를 통해서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게 되며, 대화를 통해서 지역사회를 깊이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다.

5) 교육방법으로서의 참여

러셀은 참여(Koinonia)를 선교교육의 중요한 방법으로 제시한다. 러셀은 참여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헬라이어 코이노니아에서 풀어내고 있다.

“코이노니아는 원래 어떤 사항에 스스로의 분깃을 갖는 일과, 어떤 행동을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일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기독교인이란 그

리스도의 몸에 자기의 분깃을 갖는 사람을 말하며, 그 먹고 마시는 일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에서 하나가 되어 사귀는 사람들인데, 이 사귀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의 교제를 말한다”(Russell, 1967, 128).

코이노니아 용어는 본래적으로, 나누다(to share), 참여하다(participate in), 함께하다(do in common with), 성찬에의 참여, 헌금에의 참여 등의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어지기도 한다(임창호, 1993, 86).

러셀의 참여 개념은 기본적으로 바르트신학에서 차용해 온 것이다. 바르트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선교 파트너로 삼으려 하시며, 그런 의미에서 이 용어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용어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파트너로 삼으시는 것과 같이, 우리들도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하나님의 선교 파트너로 생각하여 함께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의 현장에서도 동일하게, 교사들은 함께 사역하는 동료교사들을 파트너로 여겨 팀티칭을 수행하는 것이 좋으며, 어린학생들도 수동적인 학습자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파트너로 생각하여 그들과 함께 참여하는 교육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보았다(Russell, 1967, 130-131).

참여는 공동체의 가장 기본이며, 공동체를 이루는 방법이기도 하다. 러셀은 참여의 구조로서 공동체, 놀이, 성경을 들고 있다. 구성원들은 즐거운 놀이와 함께 공동체에 적극 참여하게 되는데, 이 때 배경이 되는 것과, 주제가 되는 것은 언제나 성경이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왜냐하면 성경은 모든 공동체가 함께 즐겁게 놀이를 하는 가운데서도 인간성을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Russell, 1967, 166).

IV. 러셀이론의 북한선교 영역에의 적용

한국의 북한선교는 전술했다시피, 기도와 사역에 무게를 두고 달려왔다.

기도로 시작한 북한선교는 필요에 따른 현장사역을 하면서 전개되어 왔다. 그러나 선교현장 경험으로부터 구체적방법론을 도출하는 신학적, 교육학적 성찰이 갖든 보편적 이론을 지금까지 찾아내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고작, 현장에서 뛰고 있는 북한선교 사역자들이나 이론가들이, 그 내용과는 상관 없이 같은 교단사람인가 아닌가, 진보진영 사람인가 보수진영 사람인가에 따라 수용되거나 배제되는 것이 현실이었다. 러셀이 뉴욕 이스트할렘지역에 버림받은 흑인청소년들을 바라보면서, 누구도 돌보지 않는 아이들에게 다가 가 14년간 헌신적인 기독교교육적 사역을 펼치면서, 선교와 교육의 접합점을 찾아내고, 기독교교육과 선교의 융복합적 방법을 제시한 것이 그의 인간화 선교교육론인데, 러셀의 이론에서 연구자는 보수적이며 진보적인 두 모습을 모두 다 볼 수가 있었다. 러셀은 모든 이론전개를 성경을 통해서 풀어가고 있었고, 동시에 성육신하신 우리주님의 모습을 선교사역 속에 지속적으로 비쳐주고 있었다. 해방과 인간화라는 용어는 진보적인 학자들이 즐겨 쓰는 말이지만, 북한선교 현장에는 가장 잘 어울리는 개념이기도 하다. 여기에서 연구자는 우리의 북한선교 현장에 러셀의 인간화 선교교육론 적용 가능성의 빛을 보게 된 것이다.

러셀이 수용하고 있는 하나님의 선교사상에서 가장 돋보이는 부분은, 하나님의 선교가 교육이라는 도구와 방법을 통해서 실천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점이다. 즉 기독교교육은 선교교육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선교와 교육을 별개로 나누지 않고 목적과 방법이라는 관점에서 해석했다는 점이다. 또한, 그리스도를 통한 화해과정을 거쳐 참 인간성을 회복되게 하고, 이것을 축하하는 것을 선교교육의 목적으로 설정한 것이다. 하나님이 인간구원을 이루실 때에,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은 분명하나, 그렇다고 인간을 무의미하게 방치하셨거나 완전한 수동적 존재로만 놓아두지 않으시고, 하나님 선교의 파트너로 삼아주셨다는 것을 지적한 점도 특징적이다. 이러한 원리를 선교교육 현장에서는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사이에 파트너십 관계로 설명한 것이다. 선교교육의 장으로서의 증인공동체

설정과, 선교교육의 구조로서의 대화, 그리고 실천적 참여로서의 방법 등은, 또 하나의 선교영역인 북한선교 현장과 이론조직에도 충분히 적용 가능하다고 보아진다.

1. 교육선교로서의 북한선교

역사적으로 교육은 언제나 선교사들의 사역 활동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다.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 대부분도 교육사역이었으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지상명령에도 교육적 동사(제자삼고, 가르쳐, 지키게)가 절반이상을 차지한다(마 28:19-20). 사도바울도 사도로 임직되기 전까지는 교육하는 교사였다(행 13:1). 일본도 1873년까지 기독교가 법적으로 금지된 국가였으나, 선교사들은 교사의 신분으로 들어가 서민들과 사무라이들까지도 폭넓게 교육시키고 있었고, 환영받고 있었다. 역사적으로 교육은 이렇게 선교의 탁월한 도구요 방법으로 사용되어져 왔다(황현조, 1998, 231).

북한선교를 바라보는 관점도 구제와 후진성 극복위한 구제와 지원, 혹은 인권운동 차원의 시각만이 아닌, 교육적 관점, 선교교육적 관점에서 재해석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북한사회 내 북한동족들, 중국 거주 탈북여성들과 그 자녀들, 한국에 입국해 있는 탈북민들과 그 자녀들에게 선교교육적 차원에서의 접근을 통해, 참인간성 회복이 이루어지고 인간화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참인간성 회복이 성취될 때마다 기쁨으로 축하해주고 축하잔치가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다.

2. 증인공동체 만들기

중국과 북한 접경지역에서의 선교이거나, 북한 내이거나, 한국에 들어와 있는 탈북민 대상 선교이거나 막론하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경과 놀이의 즐거움이 함께하는 탄력 있는 증인공동체를 구성하고 키워갈 필요가 있

다. 현실적으로 북한선교를 선교교육적 관점에서 바라볼 때, 국내에 들어와 있는 3만4천여명(2020년 10월 현재)의 탈북민들을 북한주민의 모판으로 여겨, 증인공동체로 만드는 일이 한국교회가 위험성 없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사역이라 할 수 있겠다. 이들은 북한에서 살다가 내려온 북한주민들이며, 아직도 가족들을 북한에 남겨두고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통일 후에 자신들의 고향인 북한으로 돌아갈 확률이 가장 높은 사람들이다. 남한에 와서 보고 느끼고, 배우고 경험한 것들을, 훗날 북한의 자기 고향사람들에게 돌아가 증인으로서 증언할 사람들이다.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과도 같은 사람이며, 엠마오로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두 제자와도 같은 사람들이다.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이들을 하나님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여, 가족공동체를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하나님의 가족공동체에는 남녀노소, 인종과 계급의 차별이 없어야 하므로, 이들을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요 자매로 인정하고 가족으로 받아들여주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들에게 친절함과 따뜻함으로 전달되어야 한다.

규모와 상황에 따라 소수 가족형태 공동체, 상황에 따라 지속적인 봉사가 필요할 경우 상설봉사구조 형태의 공동체를, 급한 경우를 대처하기 위해서는 기동부대형태의 공동체도 만들면 좋을 것이다. 구역과 교구, 남녀 전도회 등의 소그룹활동에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한국교회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한다.

3. 남북통일의 파트너십

북한동족은 통일의 파트너들이다. 한국이 일방적으로 통일할 수도 없으며, 북한에 의해서 한국이 일방적으로 적화되어서도 안될 것이다. 남북의 동족들이 서로가 통일의 파트너가 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파트너로 인정해 주셨듯이, 교사와 교사가 파트너가 되어 팀티칭 하듯이, 교사와 학생들이 함께 파트너가 되어 교육되듯이, 남북

의 동족들은 서로가 파트너로 인정하고 통일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교회가 신앙적으로 문화적으로 선진하고 우수하기 때문에 일방적인 북한선교를 강요하거나 흡수하려는 자세가 아닌, 그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통일국가를 함께 일구어가는 파트너로 여기는 자세가 중요한 것이다. 현실적으로 북한 내 주민들과 함께 파트너십을 갖는 것은 불가능한 일 이겠지만, 한국에 와 있는 탈북민들과 파트너십을 갖는 것은 가능하다고 본다. 지금까지, 한국교회나 한국성도들은 탈북민들을 단지 구제대상이나, 선교대상으로 보는 경향이 대부분이었던 것은 부인하기 힘든 사실이다. 그들을 북한선교 파트너로까지는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역사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 모두는 화해와 참인간성의 회복을 필요로 하는 동일한 존재라는 관점에서 볼 때, 그들을 북한선교의 파트너로 인정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일 것이다. 동시에 한국교회의 진보진영과 보수진영도 함께 파트너십을 갖고, 구서독의 개신교연합체와 같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북한선교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컨트롤 타워도 세워질 것이다.

4. 대화와 참여로 이끌어 가는 북한선교

대화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쌍방적인 것이다. 어느 한쪽의 말만 강요해서도 안되며, 어느 한쪽의 말만을 수용해서도 안된다. 북한은 후진국에다 김일성주의 종교국가이며 독재국가이기 때문에, 북한사회나 북한동족들로부터 전혀 배울 것이 없을 것이라는 편견을 가져서는 안된다. 주님께서도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셨고, 모자람과 부족함을 꾸짖지 않으시고 언제나 대화하셨다. 북한동족들이 자유세계에 사는 우리들을 잘 모르듯이, 우리 역시 북한에 사는 동족들의 삶과 생활을 잘 모르는 것이다. 서로가 모르기 때문에 서로가 함께 배워가야 하며, 서로가 들어주고 이해하는 대화의 귀를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다. 소통의 방법을 찾아서 대화를 만들어 가야 할 것

이다. 국내에 함께 사는 탈북민들과도 대화의 장을 활짝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 진보와 보수진영 교회들과 성도들, 학자들, 사역자들의 열린 마음으로의 대화와 참여가 절실히 요구되어 진다고 보아진다. 서독의 모든 교파교회들과 성도들이, 동독동족들을 구원하는 선교에 하나가 되어 결국 통일독일을 일구어 낸 것에 북한선교를 하는 한국교회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V. 나가는 말

북한은 지구상의 그 어느 나라보다 참인간성을 회복해야 하는 인간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지역이며, 그런 의미에서 북한선교의 최대과제가 북한주민들의 인간화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러셀이 14년간 목도하며 경험했던 이스트할렘가에 버려진 흑인청소년들의 상황 그 이상인 곳이다. 따라서 북한선교도 역시, 러셀이 접근했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선교의 관점에서 선교교육적 접근방법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문화인류학적 관점에서의 북한이해 접근방법이 아닌, 주민들의 인간화와 축하를 최후의 목표로 삼고, 이들을 위해 가능한 다양한 증인공동체를 만들어 줄 뿐 아니라, 북한주민들의 파트너가 되어 함께 참여하며 대화하는 인간화 선교교육적 방법으로 접근되어야 한다. 한국교회는 신학과 좌우이념을 초월한 증인공동체, 연합체를 구성하고, 파트너가 되어 함께 대화하고, 참여하여, 북한동족 구원을 위해 힘을 모아 하나의 콘트롤타워를 만들 필요가 있다. 결국 하나님의 선교적 시야에서 구원을 이루려는 그리스도를 통한 화해와 참된 인간성 회복이 아니고는, 어느 인류, 어느 인간도 참된 인간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북한선교가 인간화 선교교육론적 접근이어야만 하는 이유이다.

참 고 문 헌

- 고유환 (2009). 북한연구 방법론의 현황과 과제. **통일과 평화**, 창간호, 29-71.
- 김병로 (2000). **북한사회의 종교성:주체사상과 기독교의 종교양식 비교**. 서울: 통일연구원.
- 김병로 (2010). 북한선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8.15대성회 통일분과 서울대회 자료집**.
- 김병욱·김영희 (2010). 북한사회의 '수령교'와 타종교권 선교에 따른 북한선교. **사회과학연구**, 18(2), 90-125.
- 김진환 (2012). **통일을 향한 선교정책**. 서울: 쿤란출판사.
- 국방부 (2018). **2018국방백서**. 서울: 대한민국국방부.
- 류석렬 (2019). **북한선교전략**. 서울: 문광서원.
- 리동수 외 (2004). **김일성주의 기본**. 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 리성외 (2004). **주체철학**. 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 리영복 외 (1985). **교육사업에 대한 당의방침 해설**.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박영환 (2018). **북한선교의 이해와 사역**. 일산: 올리브나무.
- 북한인권정보센터 (2018). **북한종교자유백서**. 서울: 북한인권정보센터.
- 송인호 (2019). 북한의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확립의 10대 원칙'에 대한 고찰. **법학논총**, 43(1), 145-176.
- 오인탁 (2001). **파이데이아**. 서울: 학지사.
- 오인탁 (2008). **한국기독교교육학 문헌목록(1945-2005)**. 서울: 기독한교.
- 오픈도어 선교회 (2020. 11). 한국전쟁70주년 기념 오픈도어 7-DAY 북한 기도.
<https://www.opendoors.or.kr/board/list.do?iboardgroupseq=1&iboardmanagerseq=2>
- 양금희 (2018).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기독교통일교육**.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 이규민 (2010). 레티 러셀(Letty Russell)의 생애와 기독교교육사상. **기독교교육논총**, 24, 123-161.

- 임창호 (1993). 기독교교육에 있어서 코이노니아 개념의 재음미. **기독교교육연구**, 1, 83-98.
- 임창호 (2012). 북한 소학교 국어교과서에 나타난 김일성부자의 이상화개념과 서술에 관한 연구. **기독교교육논총**, 30, 287-316.
- 임창호 (2013). 한국교회 북한선교 현황과 한계점. 그리고 기독교교육적 접근의 새로운 모색. **기독교교육논총**, 33, 267-297.
- 임창호 (2014). 최근 한국기독교교육학 연구동향(2006.3-2013.12). **기독교교육논총**, 37, 1-24.
- 임창호 (2017). 한국교회 통일교육의 시스템화 가능성 모색. **기독교교육논총**, 51, 11-40.
- 임창호 (2020). **한국기독교교육학 문헌목록(II) 2006-2018**. 서울: 기독교.
- 임희모 (2005). 통일정책과 북한선교정책의 변천 연구. **선교와신학**, 15, 41-70.
- 정대일 (2012). **북한 국가종교의 이해**. 서울: 나눔사.
- 허성업 (2015). 남북관계에서 본 북한 선교정책 전망: 한국교회의 북한선교 방향성 고찰. **복음과선교**, 41, 45-80.
- 황신률 외 (2004). **김정일동지 혁명력사 교재**. 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 황현조 (1998). **성육신적 북한선교**. 서울: 도서출판영문.
- Victor, C. (2016). **불가사이한 국가**. 김용순 역. 서울: 아산정책연구원. (원저 2012 출판)
- Russell, L. (1986). **기독교교육의 새전망**. 정웅섭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원저 1967 출판)
- Russell, L. (1985). **인간화**. 장상 역.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원저 1982 출판)
- Russell, L. (2012). **공정한 환대**. 여금현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원저 2009 출판)

Abstract

**A Study on North Korean Missions
as Christian Education**

Changho Lim

Professor, Kosin University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a map for setting a new direction for future North Korean ministry by applying Russell's theory on Christian education as a mission. As is well known, Russell was the first Christian educator who interpreted Christian education from a mission's perspective. According to her, Christian education is not a mere instrument for church to maintain and nurture new believers, but it is part of 'Missio Dei' in a broader sense. In other words, it is a way for everyone to accept Christ's invitation, and join in 'Missio Dei' that restores true humanity through reconciling with God and our neighbors.

Based on the understanding of Russell's Christian education theory, the study examined up-to-date North Korean mission's situation, analysis, and limitations in the introduction. In chapter 2, the researcher reviewed approaching methods for understanding North Korea as well as prior studies on North Korean mission and unification within the field of Christian education. In chapter 3, Russell's theory on Christian education for humanization was briefly introduced. In chapter 4, the study attempted to apply Russell's theory in North Korean mission in the following areas: what is the true meaning of restoring humanity for North Koreans (including the refugees) and what are some of the specific ministry ideas; what is a realistic and sustainable humanization ministry; what environment can foster North Koreans to reconcile with both God and their neighbors; what are the

ways to explain that such ministry is an invitation from Christ; what should the people involved in the ministry prepare; in what areas can Russell's theory be more effective in North Korean mission compared to other methods in terms of Christian education for humanization. Finally, a conclusion was drawn in chapter 5.

《 **Keywords** 》

Mission and education, Humanization, North Korean missions, Community, Dialogue, Freedom, Participation

- 투고접수일 : 2020년 11월 30일
- 심사완료일 : 2020년 12월 26일
- 게재확정일 : 2020년 12월 26일